

여수, 2009년 1/4분기 체감경기 “암울”

여수 소재 석유화학기업들은 2009년 1/4분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.

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, 여수지역 90개 기업의 2009년 1/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는 52로 나타났다.

특히, 여수 산업단지에 몰려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의 BIS는 56으로 2009년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봤다.

원재료구매가격(98)에만 다소 기대를 걸고 있을 뿐 설비투자(89), 제품제고(78), 수출(72), 제품판매가격(67), 자금사정(67), 대내여건(56), 생산량수준(56), 대외여건(50), 생산설비가동률(50), 내수(50), 경상이익(50) 등 모든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

또 2009년 1/4분기에 예상되는 경영 애로요인을 원자재(30.6%)와 환율변동(30.6%), 자금(16.7%), 금리(5.6%) 순으로 꼽았다.

<화학저널 2008/11/28>